

0713 상반기 평가 팀장워크숍 회의록

□ 일시: 2010년 7월13일(화) 10:00

□ 참석: 이사장, 사무총장, 기흥·배분·총무·여성경제사업팀장

□ 기록: 홍현희

□ 진행

1. 기획홍보팀 상반기 평가 : 세부 평가내용 '기획홍보팀 상반기 평가서' 참조
2. 배분팀 상반기 평가 : 세부 평가내용 '배분팀 상반기 평가서' 참조
3. 여성경제사업팀 상반기 평가 : 세부 평가내용 '여성경제사업팀 상반기 평가서' 참조
4. 총무팀 상반기 평가 : 세부 평가내용 '총무팀 상반기 평가서' 참조

□ 논의 내용 요약

<배분팀>

- 구체적인 업무와 병행되는 현장 참여 방식이 업무를 빨리 익히는데 도움이 되었음.
- 배분사업의 경우 단순 지원에 머물지 않고 이슈, 정책성을 고민하는 자세와 사업방식은 여타의 복지재단과 매우 차별화된 긍정적인 측면 임.
- 여성재단의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성운동을 지속가능 하게 하는 미션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함.
- "희망과 대안 마련을 위한 배분사업" 이라는 2010년 배분사업의 방향과 기초 설정 적절
- 모금과 배분의 연계 매우 중요. 사업의 결과에서 도출된 스토리가 모금으로 이어져야 함.
- 배분(사업담당)과 모금 담당자 간의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 기흥팀에서 모금상품을 개발하여 기업모금을 성공시켜 사업담당팀인 배분영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 많은 갈등이 발생. 그러므로 실무역량의 적재적소 배치와 원활한 업무협업체계와 업무분장 중요. 이는 사무처 모든 팀에게 해당되는 평가 내용

- 하반기 계획과 과제

- 글로벌리더십육성지원사업의 계속사업을 위한 이슈 발굴
- 우정사업본부 사회공헌위원회내 여성재단 지원에 대한 부정적 견해 대응
- 차년도 5월에 규모 있게 진행될 조세현 작가의 다문화 사진전 논의 필요
- 이후 배분사업 아이টে으로서 가능성 검토 영역 : 여성노인관련 이슈
- 재단홍보의 일원화
- 총무팀과의 업무연계로 배분프로세스의 최적화 : 회계 검토 후 단체의 수정보완 요청을 총무팀에서 직접하길 요청
=> 개편 회계프로그램인 더존시스템 안정 후 재협의하기로 함.
- ODA 사업 수행 여부 토론 필요
- 우림장학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일보사의 1사1촌운동을 벤치마킹하여 1사1인 장학지원사업 방식으로 설계하여 지속 지원되는 방안 마련과 수행

· 몇 개의 기업의 후원을 조직하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 가능

- 나눔서포터즈의 활동의 의미를 살리고 응원하는 방법의 하나로 인명록 제작
- 배분사업의 성공모델인 아이다마을의 전국 확산 기획(아이다마을 2~4호 설립)
※ 인천아이다마을의 전세계약 정의는 현재대로 여성재단 명의 유지
- 단체와의 내용적 파트너십 강화
- 4년차 사업인 남자사업관련 지원기업의 needs 충족 측면에서의 평가 등 필요
- 차년도 지원 예정인 기획 공모 주제 선정
- (향후 논의) 재단의 직접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연구 기능 강화

<기획홍보팀>

- 다문화다함께라는 배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등 본연의 업무인 모금과 홍보에 집중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음을 상기 함.
- 모금 꼭지 숫자에 비해 각 모금꼭지별 모금 성과는 미진. 각 꼭지별 효과를 분석하여 실무 품을 집중해야 함. 방안함을 줄일 필요 있음.
- 모금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비해 현재의 성과는 약간 미진.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업모금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기업모금과 관련한 별도의 논의 필요
- 온라인 모금은 현재 모금영역의 트렌드여서 진행은 하지만 들이는 실무 품에 비해 성과는 미비. 그러므로 홍보효과와 모금 실적 out come 을 가지고 성과분석 필요
- 여성재단이 복지지원만 하는 곳이라면 기업의 CSR 분석으로도 모금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여성재단의 기본미션은 여성운동의 지속 가능성이므로 여성NGO의 활동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 배분사업의 결과보고서는 여성재단 모금의 바 이블/ 재료 임.
- 여성재단의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여성운동을 지속가능 하게 하는 미션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함.
- 2~3년 연속지원하고 있는 기업 모금의 경우 배분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지속가능성 불투명. 지원기업과의 전략적 네트워킹 유지가 가능해야 함을 강조
- 미래포럼은 여성재단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시점에서 사업수행 방식의 결단 필요함을 확인 함. 무엇을 누구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여성재단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 미래포럼은 재단 차원에서 전반적인 검토 필요(업무내용과 분장 등)
- social media(face book, 트위터 등) 는 로그인인 여성재단 홈페이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언론사 DB, 기업 CSR분석, 배분사업 담당과의 유기적인 협업 유지 필요. 구체적인 과제는 추후 계속 고민 필요

- 하반기 계획과 과제

- 재분장된 기획홍보팀 업무의 원활한 수행. 필요시 현재의 기획홍보팀 업무 재검토
- 미래포럼 업무 전면 검토
- 하반기 10년사 출간에 맞춰 모금 이벤트 필요, 아울러 홍보와 내부인사 예우프로그램 기획 요청

- 언론사 DB, 기업 CSR분석 관련 구체적인 과제 토론 및 토론된 과제의 수행
=> 여기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진행하되 임원진이 아닌 여성 주제에 관심 있는 여기자를 대상으로 진행.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계형성 필요
- 재단홍보의 일원화(홍보의 효율화) 방안 마련 및 수행
- 총무팀과의 업무연계로 배분프로세스의 최적화 : 회계 검토 후 단체의 수정보완 요청을 총무팀에서 직접하길 요청
: 개편 회계프로그램인 더존시스템 안정 후 재협의하기로 함.

<여성경제사업팀>

- ※ 세부 평가 내용은 팀의 상반기 평가서 참조
- 캐쉬SOS사업의 발상의 전환 필요
-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있는 Micro Credit사업과의 차별성, 지원구획(범위/내용), 틈새에 대한 현재보다 더 많은 연구 필요
- 캐쉬SOS사업을 통해 파트너가 된 단체지원은 권역사무국의 운영경비 지원은 현저히 줄었으나 해외재단을 통한 한부모연합 및 미혼모가족협회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 캐쉬SOS사업은 한부모여성가장과 미혼모 당사자가 조직화 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사업이며 이는 여성재단 지원사업의 큰 성과임을 확인
- 사회적기업 관련 재단의 고민을 확장·심화시켜 줄 수 있는 논의기구 구성 제안
- 하반기 계획과 과제
 - 여성재단이 지원하는 Micro Credit사업의 특성화/ 차별화 전략 논의 및 수립 필요
=> 현재 수행하고 있는 Micro Credit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추후 이어서 토론하기로 함.
 - 국내 Micro Credit 성공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여성재단이 주최하는 좌담회 검토

<총무팀>

- ※ 세부 평가 내용은 팀의 상반기 평가서 참조

- 하반기 계획과 과제

- 규정 전면개정안 마련
- 회계 매뉴얼 제작
- 신입직원 총무팀에서 기본교육 진행 예정
- 회계프로그램 더존의 안정적 가동
- 물품의 체계적 관리
- 여성재단다운 직원 보상체계 연구/ 논의/ 마련/ 적용 검토 지원